

소외계층 위한 20년 봉사 이점심 씨

1993년 봄까지 '아줌마'로 불렸다.
아니, 호칭은 '저기요~'였다.
그렇게 눈치만 보던 9·11살 아이들이
아침밥을 차리고 있을 때 '엄마'라고 불렀다.
1년 만이었다. 기뻐다.
'이제야 진짜 내 자식으로 돌아왔구나!'
아이들을 활짝 끌어안았다.

입양한 두 딸
뜻뜻한 사회인으로 길러
독거노인·장애인들 '손발' 자임
불우이웃에 장학금
20년 넘는 선행 인정
'청백봉사상' 수상
연금 해약해 불사금 내
"보이는 그대로 했을 뿐"



"죽었다면 땅에 묻어주고, 부르면 언제든 갈테니 걱정말고 기도 열심히 해"라며 이점심 씨가 천주교 신자인 황춘덕 씨(뇌성마비장애1급)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다.

최 근 정부로부터 청백봉사상을 수상한 이점심 씨(51·선덕행, 11월 20일, 전남 장흥군보건소 관사지소에서 만난 이 씨는 입양한 두 딸과 함께 살아온 이야기로부터 풀어놓았다.
"두 아이를 집으로 데려온 건 지난 92년이었어요. 그해 아이들의 친부모가 잇따라 세상을 떠났지요. 의지할 곳 없는 아이들을 대신해 장례를 치러줬죠. 그런데 식이 끝난 뒤에 아이들을 두고 돌아서는 마음이 내내 무거웠어요. 아이들이 눈에 밟혀 사흘 밤을 뒤척였죠. 고민 끝에 목포에서 일하던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아이들을 데려다 키우면 안 되겠느냐고 물었더니 남편이 흔쾌히 허락을 하더라고요."
이 씨는 무작정 아이들을 데려왔다. 하지만 막막했다. 시댁 어른의 눈총과 친아들들과의 다툼이 기다리고 있었다. 시어머니는 남의 애들을 왜 키우느냐고 나무랐고, 아들들은 무정만 부렸다. 마을 사람들은 '주워온 아이들' 하며 수군댔다. 그럴수록 딸들은 의기소침해져 말이 없어졌다. 여기에 야뇨증이 있는 9살 소영이(가명)는 밤마다 오줌을 싸다. 하루가 멀다 하고 이불빨래와 씨름을 했다.
"과감치가 돼 들어와 집안일을 쟁길 때 모두가 귀찮았어요. 무엇보다도 큰 딸이 일기장을 우연히 보게 되면서 다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오빠와 남동생은 사랑하니까 손찌검하고, 우리는 미워하니까 혼내지도 않는다'는 글귀를 보고 안담했죠. '내가 딸들을 남으랴만 생각했잖나.' 스스로에게 물고 또 물었죠."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그런 것은 아니었다. 눈치 보는 딸아이들의 기를 살려주려고 했을 뿐이었다. 이 씨는 이후 딸들에게도 매를 들었다. 잘못할 때면 종아리를 가져 없이 때렸고, 미워할 정도로 집안 일도 매물치게 시켰다.
그렇게 억척스레 두 딸을 키운 지 12년이 되던 어느 날, 이 씨는 한 통의 짧은 편지를 받았다. 좀처럼 말이 없던 큰 딸 미영이(가명)가 서 울에서 보낸 편지였다.
"첫 월급을 댔다고 미영이가 내복을 챙겨 보내왔어요. 그리고 이런

‘마음’ 내면
행복 따라와요

말을 함께 적어 보냈더라고요. 한때 엄마를 이유 없이 미워했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16년을 한결 같이 뒷바라지 해 큰 딸 미영 씨(25)를 한의원 조무사로, 작은 딸 소영 씨(22)를 경북대 치대생으로 키웠었다. 자기 자식도 부모도 내버리는 이 시대에 왜 이 씨는 이 길을 꿋꿋이 걸어왔을까? 사실 남편의 부모, 자식을 챙긴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일이었을 텐데, 이 씨의 모진 결심은 82년 공직에 입문하면서부터 시작됐다.
이 씨는 장흥군 보건소 업무를 맡게 되면서 근내 독거노인과 장애인들의 '아들·딸'이 됐다. 시간 날 때 마다 찾아가 말벗이 되고, 혈압·당뇨 체크와 영양제를 나눠주었다. 또 네 아이들과 휴일이면 집안 일을 해주는 것은 물론 틈틈이 장보기, 은행일도 대신 봐주며 이들의 '손발'을 자임해왔다.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든 도와주고 싶었을 뿐이에요. 시어머니 상을 당한 장애인 며느리가 어린 자식들과 장례도 못 치르고 있는데, 뒷집만 지고 있을 수 없었어요. 또 혼자 사는 뇌성마비 장애인의 힘겨운 살림살이에 고개를 푹밀 수가 있었겠어요?"
그렇게 이 씨는 강간이 두 번 바뀔 시간 동안 늘 독거노인과 장애인

들과 함께 했다. 고마움의 표시로 꼬깃꼬깃 찜질돈을 집어주던 관상을 김 할아버지, 알사탕을 까주던 장흥군 뇌성마비 장애인 오 할머니가 모두 자신의 아버지·어머니라고 했다. 때문에 이 씨는 지금까지 해 온 모든 것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었다고 했다.
"그래도 빼듯한 월급, 바쁜 직장생활에 힘들지 않았느냐"는 질문에 이 씨는 "아니다"라고 단언한다. 대신 이 씨는 이 말을 던졌다.
"제 화두가 뭐지 아세요? '어떻게 살다 갈 것인가' 예요. 30년 전, 불교로 개종해 불법과 인연을 맺게 되면서 갖게 됐죠. 언제나 스스로에게 '사람답게 잘 살고 있어?' 라고 물어요. 그러면 무지한 나를 일깨워주고, 내가 잘 살아가고 있는가를 늘 점검할 수 있게 해주죠. 그렇게 자문자답 하다보면 길이 보여요. 엄마, 며느리, 직장인, 아내, 불제자로서 해야 할 일들이 구체적으로 눈앞에 펼쳐지거든요. 저는 다만 보이는 그대로 했을 뿐이에요."
20살 때 불교에 입문해 28살부터 시작한 독거노인과 장애인 가정 방문, 38살에 두 여자 아이의 입양, 그리고 10년 전부터 벌여온 불교계 복지단체 후원금 지원과 불우이웃 장학금 전달, 최근에는 자신의 공무원공제후원을 해약해 수월한 장학 모듬에 3천만 원을 선포 보시했던 것도 이런 믿음에서 비롯됐다.
그런 이 씨에게 요즘 고민이 하나있다. 관사보건지소 인근에 사는 뇌성마비 장애인 황춘덕(52) 씨를 집으로 데려올지 말지 결심을 못하고 있다. 말도 거동도 못하는 황 씨가 늘 마음에 걸리지만, 정작 이점심 씨 자신도 지금 허리디스크로 치료 한번 제대로 못 받고 있기 때문.
"춘덕 씨한테 그랬어요. 함께 살든 못 살든 곁에 있겠다고 말이죠. 그리고 농담 삼아 이렇게 말했죠. '죽었다면 땅에 묻어주고, 부르면 언제든 갈테니 걱정 말라' 고요. 그랬더니 춘덕 씨가 웃더군요."
마음을 내면 무슨 일이든 할 수 있다고 믿는 이 씨. 그는 "지금 이 순간, 여기서" 이웃과 가족들에게 행복을 전한다고 말했다.
장흥=김철우 기자·사진=고영배 기자

정토사 건립 불사 一千佛殿

아이티 부처님, 무량수 여래불께 귀의하여 크나큰 가르침 깨달으며 불자님들과 함께 법연을 맺어 서방정토 극락세계로 성불하여지이다.



귀의 삼보하옵고 모든 불자님들의 가정과 마음마다 불보살님의 가피속에 보리반야의 꽃이 활짝 피어나길 기원 드립니다.오늘도 고통의 그늘 속에서 몸과 마음이 평온하지 못한 채 삶을 이어가고 있는 사람이 많습니다. 또한 불연을 만나고도 무상한 마음을 터득하지 못하며 탐, 진, 저 어두운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러한 중생들을 위하여 부처님 품안, 따뜻한 가정을 세워주는 열반만일의 삼가신 정토사는 이 땅에 불국정토를 이룩하고자 노력해왔습니다. 이에 불심이 깊은 불자들이 한마음의 자재한 법을 배우고자 모여 들었으나, 도량이 협소해지자 충분한 수행공간과 부처님 도량으로서의 모습을 갖추고 싶은 바람은 모든 대중의 마음속에 한결 같았습니다. 이에 정토사에서는 불자님들의 신심과 원력으로 만민의 기도도량과 교회의 도량으로 면모를 일신하고자 법당 중창 불사의 원력을 세웠습니다. 법당이만 자신의 생활을 점검하고 삶을 기다리는 곳이자 기도 정진에 임하여 자기의 신심임을 더욱 굳건히 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 정토사 중창불사 365일 특별 관음기도
· 입재 : 2004. 12. 5. 오전 10시
·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신묘장구대다라니 철야기도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정토삼부경 경의
- 일원불 부처님 조성불사
1인 1불 30만원(분납 가능), 설날제자는 100만원 이상입니다.
- 법당불사 내역 : 대들보 (대 중 소), 주춧돌, 기둥, 문짝, 시멘트
- 불사동정 입금계좌
온라인 : 농협 204044-52-048294 (예금주 박창식) * 불사금은 분납 가능합니다

한 귀취님이 출현하시면 만 중생이 깨달음을 얻고, 한 법당이 이루어지면 사바세계 안에 곧 극락세계가 이루어진다.

근 무량수경 근

사실 요즘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 불사 동참을 권한다는 것이 쉽지 않으나, 부처님께서 이런 때일수록 공덕을 짓고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또 부처님께서 이르시기를 "신심을 다하면 이루지 못할 일이 없다" 하셨습니다. 본래 불사란 인연 있는 이는 더욱 깊은 신심을 갖도록 하고, 무연 중생에게는 인연을 맺어 현재에서나 내세에서나 복락을 누리게 하여 깨달음의 길로 나아가게 하고자 하는 데 그 뜻이 있습니다. 불자님 한분 한분의 원력을 세워서 금번 불사에 동참한다면 이러한 인연의 공덕으로 무명의 입장을 벗어내고 마음을 깨달아 성불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불심이 지극하신 불자님들의 정성으로 이 중창 불사의 원안 회향을 기원하며, 아울러 동참하여 주신 분들의 인연과 공덕이 후대까지 길이길이 회향되기를 부처님 전에 간절히 발원하면서 다시 한번 불자님 가정에 불은이 총만하시길 축원합니다.
나무 무량수 여래불 나무 무량수 여래불 나무 무량수 여래불
열반만일회 삼가신 정토사 주지 명선

- 정토사 정기법회 안내
- 매월 초하루·신중기도 : (음) 1일 ~ 3일 오전 10시 30분
 - 매월 산신제일 : (음) 8일 오전 10시 30분
 - 매월 보름인등법회 : (음) 15일 오전 10시 30분
 - 매월 지장제일 : (음) 18일 오전 10시 30분